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애기행**  
 (32) 작봉산 쌍계사



보물 408호인 쌍계사 대웅전 기둥.



북원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봉황루.



쌍계사 상수리나무.



외래종인 물미나리는 해열과 이뇨작용을 한다.

# ‘문 없는 문’ 속 젊은 숲 기운 가득

## 인공(人工) 절제한 대웅전, 천의무봉 美 자랑

교회들이 들어서 이름마저 퇴색한 ‘절골 마을’ 절로 가는 길은 세간(世間)에서 출세간(出世間)으로 가는 길이고, 속(俗)에서 성(聖)으로 가는 길이다. 절은 걸어서 들어가야 맞는다.

논산에서 양촌행 시내버스를 타고 중산리 쌍계사 입구에 내리면 작봉산에서 개울물이 내려온다. 이 개울은 지방 2급 하천인 장성천 분류이다. 개울가에 갈대, 물억새, 갈뽕나무 등 수생식물이 그득하다. 물가의 갈대숲도 붉게 물들었다. 물가에 물미나리가 파랗게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다. 물미나리는 의래종이다. 물미나리나 논미나리보다 향은 덜 나지만, 줄기가 질기 않고 부드럽다. 열을 내리게 하고 이뇨작용을 해주는 식용 미나리이다.

중산리에서 쌍계사까지는 십리길. 길을 따라 집들이 모였다가 흩어졌다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곳을 ‘절골’이라 부른다. 그러나 지금 절골 마을에는 교회 2개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도 옛말이 되어버렸다. 비단 이곳만이 아니다. ‘절골’이라는 지명은 곳곳에 남아있지만, 해방 이후 교회들이 속속 들어서서 이제는 천송가를 들으며 절로 들어가야 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절이 가까워지면 저만큼 절골지(池) 저수지가 나타난다. 둑 아래 몇 집이 웅기종기 모여 있다. 지은 지가 오래되어 집들이 모두 낡았다. 여기까지가 쌍계사 소유 절 땅이다.

작봉산의 단풍이 절골지 물 속에 울긋불긋한 치맛자락을 드리우고 있다. 오랜 기쁨으로 낮아진 수면위를 논병어들이 한가로이 유영하고 있다. 논병어라는 오리류 가운데 몸집이 가장 작지만, 민물과 바닷물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전역에서 서식한다.

새들은 물이 가벼워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다. 똥오줌도 따로 누지 않고, 오래 참지도 않는다. 심지어는 날아다니면서도 찬다. 그러나 새들에게도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절골지 주변에 새들이 다양하게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 봉황루 해체복원 공사는 사찰 전각의 ‘지속 가능한 생태건축’ 입증하는 좋은 예

쌍계사는 무문(無門)의 절이다. 화재로 소실된 후 다시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설이 깃든 하마비를 지나면 산자락의 낙엽송 숲 속에 부도와 중건비가 모여 있다. 멀리 작봉산(鶴鳴山)이 보인다.

조선조 문헌에 ‘쌍계사 재불명산(雙溪寺 在佛明山)’이라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작봉산의 옛 지명이 ‘불명산’ 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작봉산은 해발 418미터에 불과한 육산이지만, 충남과 전북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쌍계사는 작봉산의 북쪽 기슭에 북향으로 앉아 있다. 절을 가운데 두고 좌우로 계곡이 내려온다. 그래서 쌍계사라고 했다. 처음에는 ‘백암(白庵)’이라고 불렀으나, 절에 화제가 있어서 ‘쌍계사’로 이름을 바꾸었다. 다리 아래에 생강나무 한 그루가 홀로 노랗게 단풍 들었다. 이른 봄에 노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는 전국 어디서나 자라는 낙엽 활엽수 관목이다. 줄기나 가지를 꺾으면 생강냄새가 난다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었다. 예전에는 절에서 이 나무의 기쁨으로 등불을 켜기도 했다. 어린잎은 말렸다가 차를 우려 마셨다고 한다.

문 없는 문을 들어서면 눈높이의 석축이 있고 돌계단이 나 있다. 돌계단을 올라서면 대웅전과 봉황루가 넓은 중정(中庭)을 만들고 있다. 마침 봉황루 해체복원공사가 한창이다. 지붕을 걷어낸 집체가 사찰 건축의 생태성을 직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찰건축물은 조립성이 강해서 기둥과 씨까래 같은 구조물들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못을 사용하지 않고 사계를 맞추어 치부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그대로 해체하여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실성(移索性)도 뛰어나다. 요즘 학계에 흔히 말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건축물’이 바로 사찰의 전각들이 아니던가.

쌍계사 절터는 제석천이 잡아 주었다고 전한다. 전설에 따르면 보물 408호인 대웅전은 제석천의 아들이 강림해 각지의 백성들이 보내온 여러 가지 진귀한 나무들로 지었다고 한다.

심지어 대웅전 오른쪽 3번째 기둥은 철 줄기로 만들었다고 전설까지 있다. 비틀어진 근육질을 보아 철 기둥은 서어나무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대웅전은 단층 팔작지붕의 당당한 규모와 함께 천의무봉한 자연미를 자랑한다. 하지만 특목 처서 세운 듯한 자연목 기둥에서부터 다듬지 않은 담방주초에 이르러 기둥까지 가능한 인공(人工)을 절제했다. 후불벽을 세운 기둥까지도 구불구불한 자연목 그대로이다.

요사채 마당에 갈나무가 잎들을 떨근 채 서 있다. 가지 끝에 매달린 연시가 지나가는 바람에도 푹 떨어진다. 감은 세계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만 재배되는 동양 과일이다. 감잎은 과일나무 가운데 유일하게 차(茶)를 제공해준다. 여름날의 그늘도 좋다. 새들이 동지를 틀지 않고, 해충이 거의 범접하지 않는다.

나한전 밖에 큰갯쟁이나비 한 마리가 가을 햇살 아래 낮잠을 즐기고 있다. 큰갯쟁이나비는 날개의 편 길이가 6센티 가량 되는 중간 크기의 나비다. 양쪽 앞날개 가장자리는 흑색 바탕에 주황색 무늬가 있으며 뒷날개 바깥 가장자리에 주황색에 검은 점들이 나 있어서 매우 아름답다. 가을에 보이는 것은 이른벌레로 겨울을 지낸다.



줄기와 가지가 곧게 자라 목재로 쓰기에 알맞은 일본 원산 낙엽송은 쌍계사 주변에서 흔히 목격된다.

### 작봉산 산림은 산불로 사람의 힘을 받아 이루어진 ‘천연갱신림’

대웅전 뒤로 작봉산 자락이 급하게 내려온다. 쌍계사를 감싸고 있는 숲의 나이는 비교적 젊다. 나무들의 나이들도 모두 고만고만하다. 이러한 동령림(洞齡林)은 과거에 산불이 있었거나 산불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군데군데 군락을 이룬 노간주나무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작봉산 산림은 사람의 힘을 많이 받아 이루어진 천연갱신림(natural regeneration)이다. 낙엽송(일본이끼나무)이나 소나무나 잣나무 등을 보면 알 수 있다.

낙엽송은 이름 그대로 일본을 원산지로 하는 낙엽지는 소나무이다. 우리 소나무에 비하면 매우 빨리 자란다. 잘 자란 나무는 높이가 무려 30미터에 달고, 지름도 무려 1미터 가까이 자란다. 게다가 줄기와 가지가 곧아서 열린 키위서 목재로 쓰기에 그만이다. 그리고 이른 봄 연두색 싹도 아름답고 가을날 황갈색 단풍도 아름답다. 겨울날 설경도 좋다. 그 밖에 글썽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잣나무, 서어나

무 생강나무, 쪽동백, 철쭉, 진달래, 쥐뚝나무, 국수나무, 참미대덩굴 등이 있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없다.

대웅전 뒤로 정상에 오르는 유일한 등산로가 나 있다. 등산객들에겐 미안하지만 절에서 그 등산로를 폐쇄한 것은 절한 일이다. 대웅전 뒤로 깔이 드러나면 경내도 산란하거나 부처님 등 뒤로 난 길은 풍수적으로도 좋지 않다. 작봉산 정상에 서면 금남정맥이 전북과 충남을 가로고 있다. 익산 쪽은 경사가 급하고, 논산 쪽으로는 완만한 편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작봉산은 <산경표>에 나오는 금남정맥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것은 <산경표>의 금남정맥이 실제와 다르게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산경표>에는 금남정맥이 전북 완주 주화산에서 시작해 부여 부소산 조동대에서 금강에 접수되고 있으나, 실제 산줄기는 씨리재-불명산-시루봉-남당산-작봉산-천호산-미륵산-오성산을 거쳐서 서해에 이르고 있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eco>

## 인터넷 수업으로 4년제 학사학위와 자격증을 동시에!

## "e-시대의 전문가를 키운다" 2005학년도 신입생/편입생 모집

### 한방건강학과 (1학년 모집)

**"한약과 음식을 조화롭게 다스리는 건강음식 전문가"**

- 한방과 약선(藥膳)요리의 정목을 통한 질병 예방 및 치료
- 전·현직 한의학 교수의 깊이있는 강의
- 지역별 요리학과 연계 실습교육 병행

### 요가·명상학과 (1학년, 3학년 모집)

**"요가·명상으로 참된 나를 추구한다."**

- 전국 33개 지역 요가원 실습 운영 실시
- 인도 요가 초·중·고수 3인 강의 진행 (Prof. C. Bhushab, Prof. H. Singh, Prof. K. Mishra)
- 인도요가 해외연수를 통한 현지 요가 체험
- 졸업(원)지과정 수료증, 인도 Delhi, Bihar Yoga 대학교의 공인요가자격증 수여

### 차(茶)문화경영학과 (1학년, 2학년 모집)

**"차(茶)문화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국내 최초학과"**

- 중국 절강수인대학교의 대례사 차문화사 자격과정 운영
- 한국제다 등 산학협력을 통한 현장교육
- 전국 50개 대학원과 연계해서 교육실시
- 자격증 : 전통차(茶) 예절 강사(사범), 선·명상 지도사

● 모집학과

학부	모집학과	신입생	편입생
한방건강학부	한방건강학과	0	
	요가·명상학과	0	0
	전통약학연계학과	0	0
문화예술학부	한국복식과학과	0	0
	차(茶)문화경영학과	0	0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과	0	0
	유아교육학과	0	0
공무행정학부	경찰학과	0	0
	공무행정학과	0	0
경영학부	부동산세무경영학과	0	0
	중국비즈니스학과	0	0
계원학부	계원기독교학과	0	0
	계원세무학과	0	0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정보학과	0	0

● 전형일정

전형	구분	일시
특별전형	접수기간	2004. 12. 15(수)까지
	합격자발표	2004. 12. 17(금)

● 특별전형 전형자에 한하여 입학금(10만원) 면제혜택을 드립니다.

● 지원자격

① 신입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음.  
 ② 편입생 : 2학년편입 - 1학년 이상 통학을 필히하고, 35학점 이상 취득자  
 3학년편입 - 2학년 이상 통학을 필히하고, 70학점 이상 취득자  
 ※ 공익근로요원 입학 가능

입학상담 080-285-2854 / www.wdu.ac.kr  
 >> 자세한 입학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전

- 학교에 가지않고 인터넷으로 공부하는 정규 4년제 대학교
-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
- 일반대학교의 1/3수준의 저렴한 등록금과 다양한 장학혜택
- 재학생 병역면제 혜택 및 졸업 후 대학원 진학 가능
- 학자금 융자 가능 및 연말정산시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
- 각 지역별 교육센터를 통한 학습활동 지원

■ 지역교육센터 : 광영교육센터 / 부천교육센터 / 부산교육센터 / 광주교육센터 / 전주교육센터 / 익산교육센터 / 제주교육센터